

2008년 9월 28일

## 불가능은 없다.

말씀: 눅1:37

요절: 눅1:37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전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며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 정복을 실패했고,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었는지 몰라도 결국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 귀양을 갔습니다. 다시 황제의 자리에 복위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은 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가능한 꿈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공에는 노력보다 운(運)이 더 많이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운이 70%이고 기술(노력)이 30%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업가이든지 정치가이든지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되면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결과는 운에 맡긴다, 하늘에 맡긴다, 나는 다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어떤 이들은 행운도 노력하는 이에게 따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 가능과 불가능을 예측하는 일은 “예언”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는 것,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 등은 모두 보다 정확한 예측, 예상을 위한 것입니다. 지식의 최고봉, 궁극의 단계는 정확한 예측입니다.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이란 CIA는 가장 막강한 정보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젯더미의 유산”의 저자 팀 와이너는 “CIA 연대기는 한 순간의 덧없는 성공과 오랜 세월 지속되는 실패로 점철돼 있다”고 말합니다. CIA의 분석은 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한국의 6.25전쟁, 최근의 이라크 전쟁까지 정보의 분석과 예측이 맞은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CIA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은 절대 없다고 예측하고 보고했습니다. CIA는 정복 기관이 아니라 ‘오보 기관’이며, 미국은 CIA가 ‘있어서’가 아니라 CI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특이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과 최고의 인력, 최다의 정보 수집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예측하는데 실패하는 실례들입니다. 그렇다면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인력으로 하는 예측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자랑해도 미래를 정확히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잠27:1). 하나님은 사람이 하루 앞을 고사하고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역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약4:14)고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몇 초 앞만 미리 알아도 교통 사고를 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초 앞을 알지 못한 채 사고를 내고, 죽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연구소를 차리고, 국가마다 정보 기관을 만들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대비하게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제대로 예측한다면 망할 회사가 없고, 성

## Non-Series-불가능은 없다.

공하지 않을 기업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또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전 7:14). 한 마디로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게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정보화가 아무리 진척되어도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점성술, 복술, 심령술, 마술, 신접, 강신술 등 흑세무민하는 무리들이 넘치는 법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그에게 말할 자가 누구이랴?](전 8:7).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니....](전 9:12a)라고 합니다.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 그가 있는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에게 알려 주겠느냐?](전 10:14b).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전 11:5b)고 합니다. 사람이 아는 것은 참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일 일도 모르면서 타인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자신하는 사람들,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얻으려는 이들도 넘쳐 납니다.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대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해 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해 주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대언의 말씀들'입니다.(벧후 1:19). 예수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계 19:10).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압니다.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일들도 압니다. 주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은 현재의 삶을 거기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땅만 알고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늘의 일을 아는 자들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현 세상만 알고 다가올 세상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것들을 미리 아는 자들의 삶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만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그것들을 미리 아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도저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자들과 빛을 가진 자들의 삶은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삶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모두 다 가능한 일이란 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 주님은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창 17:1)고 말씀하셨습니다. 태가 죽어 버린 90세의 할머니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일은 현대 의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에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생물학적,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눅 1:37)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눅 18:27)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병어리들의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야 슬프냐이다. 주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는 너무 어려워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렘 32:17)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비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마 9:5). 서기관들은 둘 다 어려울 뿐 아

니라 둘 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께는 둘 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렘32:27)고 물으십니다. 주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는 일이나, 거의 하룻동안 해를 세워 두는 일이나(수10:12), 해를 뒤로 돌리는 일이나(왕하20:11)- 이 두 사건은 시간과 공간 중 시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신 일입니다. -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거나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일이 주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삿6:37-40). 주님은 홍해를 가르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돕는 일에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출14:15-22). 어떤 문제에서도 주님이 어렵도다! 힘들도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힘들어 하시며 지치시는 일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이며, 마음은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사1:4, 렘6:11). [내 혼이 너희의 일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사1:4),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리고 뒤로 물러갔으므로 내가 너를 치려고 내 손을 내밀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돌이키는 일에도 지쳤느니라.](렘15:6). 주님은 성도들의 불신과 위선에 힘들어하시고 지켜하시지 그 외에는 어떤 일체 지치거나 힘들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氣盡)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明哲)은 찾을 길이 없도다.](사40:28).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121:4). 전능자란 힘이 쇠약해지거나, 새로운 힘을 보충해야 하거나 힘을 재충전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주님은 힘을 얻기 위해 무엇을 먹으셔야 할 필요도 없으시고, 운동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빛을 지으시는 일이 우리가 한 마디 말을 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주님은 단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그대로 되니라]는 구절들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주님은 빛에게 명령하시면 빛이 생기고, 주님은 구름들에게 말씀하시면 구름들이 비를 내립니다.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님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 표면 위에 떠있는 구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다 행하고자 함이라.](욥37:12). 주님이 구름들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쪼레와 가시가 올라올 것이며 또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사5:6). 사람들은 그제 기상 현상이지 구름이 주의 명령대로 비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이상 기후’이니 ‘기상 이변’이니 오존층이 어찌구 저찌구 합니다.

현대 교육에 물든 자칭 지식인들,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철없는 과학자들의 말에 장단을 맞추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신의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란 말입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매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그것이 굳게 섰음이라.](시33:9). 주님은 바람, 땅, 구름, 하늘들 뿐만 아니라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욥2:10).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훈련받은 돌고래가 교관을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막4:39). 풍랑이 치던 바다는 고

요해했습니다. 이것이 이상 기온 때문입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깊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힘, 능력, 권능, 권세와 같은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이 주님을 깊이 목상할 때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끝없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시지만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분히 성경의 맨 첫 페이지부터 읽어 가노라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고 전율합니다. 창세기 1:1부터 모든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 대언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 방식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 본 반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이 이루어 놓은 과학과 지식의 바벨 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자연 법칙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누구도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 자연 법칙을 신뢰하고, 인간들이 밝혀 놓은 과학적 지식을 신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사람들에게서 듣고 배운 지식과 사고에 대해 역설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며, 과학과 철학이 말하는 주장들과 어긋나는 성경 기록들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현격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 수양이나 도(道)를 닦아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불신의 세대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어찌 내 손이 짧아져서 구속(救贖)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건져 낼 능력이 없었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강들이 광야가 되어 강들의 물고기가 악취를 내니 이는 물이 없으므로 그것이 목말라 죽기 때문이니라.](사50:2). 주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신을 주님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사59:1). 주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신은 전능을 무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믿지 않을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구자요, 무능력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모세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중에서 걷는 남자가 육십만 명이 온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하매](민11:21~22).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처럼 우리는 상식의 범주, 이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예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사고 방식이야말로 지독한 불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모세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보게 되리라, 하시니라.](민11:23). 하나님은 하늘에서 빵을 내리시는 일이나 광야에서 고기를 먹이시는 일이나 반석에서 물



을 나게 하시는 일이나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백성들은 40년 동안 걸었지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는데, 주께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한되고, 좁아지고, 적어지다 마침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적은 능력밖에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이는 주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능력을 주님의 뜻에 맞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함, 죽음, 질병, 파산과 같은 눈물과 슬픔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자를 믿는 신자들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 가라, 하면 옮겨 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마 17:20).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말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에 결합되어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산을 옮길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들어왔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존재 유무가 가능과 불가능의 가능자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성공인가? 실패인가?의 문제는 나의 능력, 사회적 여건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하시니](막9:23). 믿음의 기도는 그 믿는 바에 관한 한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하라고 주신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아무런 조직이 없고, 사람이 없고, 가진 돈이 전혀 없다고 해도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불가능이 없는 세 가지 기도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극복하는 기도입니다.

❶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 21:22).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약 5:15).

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4),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요 16:23).

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마 18:19).

이런 이유로 바울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요 15:5)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